30호 꽝!

이승엽 3년 연속 30 홈런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년 연속 시즌 30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서 선발 4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 1-3으로 뒤지던 4회 1사 2루에서 상대 좌완 선발 투수 이시카와 마사노리의 몸쪽 공을 잡아 당겨 우측 펜스 상단 광고판을 때리는 초대형 동점 투런 아치를 그렸다.

시즌 30호를 기록한 이승엽은 이로써 2004년 일본 진출 후 2005년부터 3년 연속 30홈런을 달성했다.

9월26일 주니치 드래곤스전에서 천금같은 동점 솔로포로 기세를 올린 이승엽은 이날 역시 귀중한 동점포를 터뜨리며 주포다운 기개를 떨쳤다. 타점은 73개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고향 완도서 '제2의 최경주'를 꿈꾸며 천혜의 절경인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국가대표 상비군 등 꿈나무 골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美 포스트 시즌 내일 '플레이 볼'

월드시리즈 패권을 놓고 양대리그 8팀이 맞붙는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4일 오전 4시(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내셔널리그(NL) 디비전시리즈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막된다.

비교적 일찍 순위가 가려진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동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중부), 로스앤젤레스(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서부)가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뉴욕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로 1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막판까지 혈전을 치른 NL에서는 필라델피아(동부), 시카고 컵스(중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서부)가 지구 타이틀을 따냈고 콜로라도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이겨 12년 만에 가을 잔치 막차를 탔다.

작년 가을 축제를 즐겼던 8팀 중 양키스를 빼고 모두 물갈이 돼 '가을의 전설'도 새로운 양상으로 흐를 전망.

필라델피아가 1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컵스(4년), 애리조나(5년), 클리블랜드(6년) 등 모처럼 올라온 팀이 꽤 있다.

이밖에 2년 연속 디비전시리즈 고비를 못 넘은 양키스가 이번에도 주저 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제이 싱 국내서 샷 대결

내일 한국오픈골프대회 참가

양용은·김경태와 우승 다툼

올 시즌 한국골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표 주자들이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사진)과 한판 대결을 펼친다.

무대는 4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 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리는 제50회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대회.

국내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오픈은 50회째를 맞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31개의 우승컵을 수확한 세계랭킹 12위 싱을 불러 들였다.

불혹을 훌쩍 넘긴 44세의 싱은 올해도 PGA 투어에서 두차례 우승을 거두며 상금랭킹3위(472만8천달러)에 올라 녹슬지 않은 기량을 발휘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에서 태어나 동남 아시아를 떠돌며 골프를 익힌 끝에 지난 2004년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꽃을 피운 싱은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특급 스타.

싱은 주목받은 선수가 아니었을 때부터 한국을 여러차례 방문했고 1995년 춘천골프장에서 열린 아시아투어 패스포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무대가 낯설지만은 않다.

이에 맞서는 한국 대표주자들도 우승컵을 외국 선수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오픈 우승컵은 2002년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2003년 존 댈리(미국), 2004년 에드워드 로어(미국) 등 3년 연속 외국 선수가 차지했지만 2005년 최광수(46·동아제약), 그리고 지난해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 등 2년 연속 안방 선수 몫이었다.

작년 1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HSBC챔피언스에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우승, 세계를 놀라게 했던 양용은은 타이틀 방어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샷을 가다듬고 있다.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슈퍼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도 강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최근 부진에서 벗어날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EPL 이영표가 안 보인다

최근 4경기 연속 못 뛰어 주전경쟁 밀려났나 우려

이영표(30·토트넘)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영표는 2일 오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 2007~2008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4-4 무승부)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달 21일 이후 최근 4경기 연속 결장이다. 이영표가 결장한 최근 4경기에서 에코토와 베일이 2경기씩 왼쪽 풀백으로 뛰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베일이 주전경쟁에서는 일단 비교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마틴 욜 감독은 시즌 초반 이영표를 왼쪽 수비, 베일을 왼쪽 미드필드에 배치해 둘의 공존 가능성을 실험하는 듯 했지만, 욜 감독의 머리에 들어 있던 왼쪽 풀백 자원은 베일이었다.

부상으로 빠졌던 스티드 말브랑크와 애런 레넌 등 미드필드 자원이 돌아오면서 이영표와 베일의 상생은 더욱 힘들어졌다.

최근 18위까지 처지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욜 감독이 승리를 위해 공격력이 좋은 베일에게 출전 기회를 더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성화호 13일 日과 평가전

6회 연속 올림픽축구 본선진출을 노리고 있는 박성화호가 시리아 원정경기(17일)를 앞두고 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오후 "박성화 감독의 요청에 따라 두바이 전지훈련 기간에 올림픽대표팀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카타르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일본과 평가전을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VS 인천, 포항 VS 제주

FA컵 오늘 4강전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축구의 최고봉을 가리는 2007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에 오른 네 팀 사령탑은 이구동성으로 '오직 승리'에 대한 강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프로축구 K-리그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FA컵 준결승에 오른 네 팀들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저마다 FA컵 우승을 향한 강렬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FA컵 우승팀에 주어지는 2억원의 상금보다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이 가장 달콤한 우승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 인천, 포항, 제주 등 네 팀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막바지 싸움 속에서도 FA컵 결승 진출에 '다걸기'를 하고 나섰다.

FA컵 준결승전은 3일 포항-제주(오후 5시·포항전용구장)와 전남-인천(오후 7시·광양전용구장)의 대결로 치러진다.

인천은 지난해 FA컵 4강전에서 전남을 만나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후 1년 만에 전남과 또 한번 준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이에 맞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전남 허정무 감독은 "경기는 해봐야 한다. 2연패는 하늘의 뜻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3년 만에 FA컵 준결승에 진출한 제주 역시 '난적' 포항을 만나게 됐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지난 주말 경남전을 마친 뒤 제주도로 이동하지 않고 경주에서 FA컵 대비 특훈을 치른 제주는 '무조건 승리'를 외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3일(수)

▲프로야구 〈두산 : 현대〉(13 : 50·SBS 스포츠)

▲KOVO컵 마산 프로배구 남자부 4강리그(14 : 00·KBSN SPORTS) ▲프로야구 〈삼성 : 한화〉(14 : 00·MBC ESPN)

▲대구 국제육상대회(16 : 10·KBS2)

▲FA컵 축구 4강전〈포항 : 제주〉(17 : 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50·SBS 스포츠)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 〈성남 일화 : 우라와레즈〉(18 : 50·Xports)

4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발렌시아 : 첼시〉(04 : 00·MBC ESPN)

▲메이저리그 AL 디비전 시리즈 (07 : 20·Xports)

DYMSCO 담스코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敢히 해 볼 수 있는 제안!
CALEO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 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인근 자연, 생산녹지
·보훈병원부근 산월동 450평 하남공단 9번로부근 지방도로접 안청동 100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6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보훈병원 부영아파트 앞 250평
·신창동 제방도로부근 1080평
·신창동 보건대 마을부근 51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합동법률경매㈜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9 H.P : 011-1770-3328
▶아파트 (단위 만원)
▶주택/다가구(원룸)
▶근린 주택
▶근린시설/상가
▶숙박시설(모텔)
▶대지/농지/임야/공장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상가주택/주택
▶공장
▶임야/농지
▶아파트